



The Mediator Effect of a University's Entrepreneu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Support System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uk-Hwa Jung*

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ABSTRAC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into an university students to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programs aided by university what reflected in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model and was establish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urrent university students. Total of 364 suitable sample data were used to empirical analysis hypotheses.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through analysis of the structural mode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of universities' startup support systems,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consul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entrepreneurial fund had a negative influence up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entrepreneurship ha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nsulting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entrepreneurial education has more influence than entrepreneurial consulting. This implies that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new business, focusing o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strengthening entrepreneurial consulting for start-ups.

© 2018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Startup support systems,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consulting, Entrepreneurial fund, Entrepreneurship, GEM

ARTICLE INFO: Received 11 June 2018, Revised 25 July 2018, Accepted 7 December 2018.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the 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155-40 Baejae-ro Seo-gu Daejeon, 35345,

KOREA.

E-mail address: jungdh@pcu.ac.kr

1. 서론

지난해 3년 만에 3% 성장률로 복귀(3.2% 예상)하고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 달성은 물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까지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세 지속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년실업 문제만큼은 정부의 난제 중 난제로 남을 태세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일찌감치 일자리 정부를 천명하고 올해 19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청년실업이 좀처럼 나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에 의한 구직경쟁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업종별 낮은 고용창출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다각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경제 분위기에 따라 현 정부와 대학에서도 청년실업을 해결을 위해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취업률 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의 취업상황을 대학알리미에 정보를 공시케 하여 창업한 학생을 취업으로 본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책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기관의 청년창업 정책에 힘입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창업은 정부 및 지자체, 대학의 여러 창업지원 제도를 발판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 대학 창업가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기이고 창업에 관심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을 통한 창업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들이 제 각각이어서 혼선을 빚었으며 지

원 수혜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창업의지 활성화 노력에 비해 대학 내의 창업지원시스템 구성 및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2].

지금까지 창업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일반 창업자에 대한 환경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초점이 두었고,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스템과는 상이하게 심리적·개인적·배경적인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서 진행되어온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 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왔고, 어떻게 대학생의 창업가정신을 높일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GEM모델을 기반으로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가정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창업가정신이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GEM모델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학생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차원에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창업프로그램 체계구성에도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도출된 연구변수들의 준거이론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방법과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지원시스템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이하 GEM) 연구모델 일부를 토대로 대학 차원에서의 창업지원제도와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는데 있다.

GEM 모델은 1999년 미국의 Babson College과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이 공동으로 매년 각 국가별 창업가들의 기업 활동수준을 지수화한 초기총창업활동(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을 발표한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적으로 GEM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3,4]. GEM의 결성 목적은, 창업활동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창업의 유형과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고, 창업가정신과 경제발전 구조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며, 창업가정신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밝혀내서, 국가 경제발전과 창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5,6].

GEM 모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구조를 거치면서 창업체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를 개념화하였다. 이는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가의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도 작용하여 기업의 설립과 소멸정도를 결정짓고, 궁극적인 목적은 활발한 창업활동을 기반으로 국가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다[6,7]. 본 연구에서는 GEM 모형의 창업체제여건을 대학의 창업지원활동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 GEM 모형에서 정부의 정책항목 중 정부가 일반인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세제지원, 규제완화, 연구개발이전, 물리적 시설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제외시켰다[8].

최근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Kim[9]은 창업지원시스템 중 창업교육, 시설인프라, 인적네트워크가 창업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지원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Park[10]은 교육지원, 금융지원, 경영지원으로 이루어진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9], Park[10]의 선행연구와 예비창업가들이 관심이 높은 대학의 창업지원시스템을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2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정부와 대학주도로 창업 지원정책 확산과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창업가정신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논의들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 기업가정신으로도 불리는 창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Schumpeter[12]가 강조한 것으로, 미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불확실한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키우려는 분명한 자세나 의지로 보았다. Schumpeter 이후로 Timmons[13]은 창업가정신을 창업기회인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고, Morris & Lewis[14]는 창업가적 태도와 행동의 근간으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이렇듯이 여러 학자들이 관점에서 다양하게 창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이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업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진 창업가적 마인드라고 정의하였다[15].

또한, 창업은 예비창업자가 미래에 자주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동기를 나타내는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극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16]. 창업의지란 즉각적인 창업 행동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창업자가 향후 창업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16]. 따라서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이라 할 수 있다 [17].

창업가정신이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업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진 창업가적 마인드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8,14]. 창업가정신은 끊임 없이 기회를 탐색하고, 계산된 위기를 감수하며, 창업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열정 등의 특성이 창업가에게 필요하다. 또한, 창업가정신을 통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탐색함으로써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8].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을 창업역량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간에는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Yoon[1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확실한 창업환경에서의 도전적, 진취적인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8]. 특히, 창업가정신의 요인 중에서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8,18]. 또한, Shin & Ahn[1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가정신의 하위요인(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창업가정신 정도가 매개변수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변수 전체의 합계 값으로 창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상관성과 영향력을 창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와 구조적 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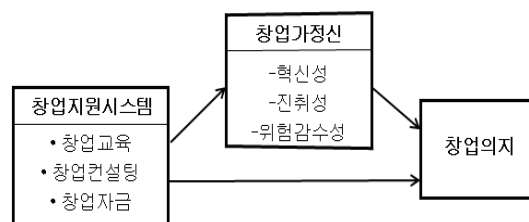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3.2 가설의 설정

기준에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지원요인과 창업의지간의 직접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창업지원시스템, 창업가정신,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컨설팅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창업교육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창업컨설팅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창업가정신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창업자금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창업가정신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 단위들의 측정항목은 대부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으로 설계되었지만, 일부 항목은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각 문항별로 Likert(5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각 연구단위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관련문헌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research variables

연구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 변수	관련 문헌	
창업지원시스템	창업교육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관련 정보와 기술을 가르치는 정도	Edu 1-3	Jang & Yang[6], Jang[8], Lee[20], Kraaijenbink et al[21]
	창업컨설팅	창업 전문가의 창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Con 1-3	
	창업자금	창업에 필요한 자금정보와 실질로 지원하는 정도	Fun 1-3	
창업가정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 혁신적인 방법, 진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정도	Ent 1-6	Kang & Ha[9], Turker et al[22]	
창업의지	어떤 동기에 의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발생되어 창업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결심	Int 1-5	Kang & Ha[9], Turker et al[22]	

4. 실증분석

4.1 조사방법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대전·충청 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410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 46부를 제외하고 최종 364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시스템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요인이 창업가정신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과 AMOS 16.0을 사용하여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특성	구분	N	(%)
학년	1학년	75	20.6
	2학년	184	50.5
	3학년	68	18.8
	4학년	26	7.1
	졸업생	11	3.0
성별	남자	175	48.1
	여자	189	51.9
전 공 계열	인문대학	38	10.4
	사회과학대학	28	7.7
	자연과학대학	21	5.8
	경상대학	40	11.0
	공과대학	77	21.2
	농업생명과학대학	77	21.2
	생활과학대학	12	3.3
	예술대학	15	4.1
	사범대학	29	8.0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2	3.3
희 망 창 업 분야	기타	15	4.0
	제조업	21	5.8
	전문, 과학, 기술, IT	129	35.4
	보건 및 사회복지	20	5.5
	예술, 스포츠, 여가	51	14.0
	숙박, 음식점업	53	14.6
	도소매(온라인쇼핑몰 포함)	51	14.0
	기타	39	10.7

4.2 연구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4.2.1 1차분석

연구단위별로 직각회전방식의 하나인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요인적재량 0.6 이상과 요인설명력은 0.5 이상을 설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컨설팅요인에서 3번째 항목은 내적일관성이 부족

하여 제거되었으며, 이 결과 남은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계산한 결과 모두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 1차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구성개념	최초 설문 항목 수	최종 선택 항목 수	α 계수
창업교육	3	3	.893
창업컨설팅	3	2	.826
창업자금	3	3	.935
창업가정신	6	6	.816
창업의도	5	5	.895
계	20	19	

선행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이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구성개념을 구성하는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의 전체 누적 설명력은 72.943으로 나타났다.

표 4. 선행요인군의 재 추정결과
Table 4. Results of re-estimation precedent factors

구성개념	요인 적재량	고유 치	설명력	누적 설명력	α 계수
창업 교육	edu3 .896	3.476	18.902	18.902	.893
	edu2 .870				
	edu1 .829				
창업 컨설팅	con2 .818	3.415	15.625	34.527	.826
	con1 .802				
창업 자금	fun2 .836	2.726	13.295	47.822	.935
	fun3 .829				
	fun1 .802				

결과변수만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의 의도대로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첫 번째 문항이 요인적재량 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제거하고 4개의 문항을 구조방정식분석에 이용하였다. 결과변수를 구성하는 창업가정신, 창업의지 요인의 전체 누적 설명력은 71.554로 나타났다.

표 5. 종속요인군의 재 추정결과
Table 5. Results of re-estimation subordination factors

구성개념	요인 적재량	고유치	설명력	누적 설명력	α 계수
창업가정신	ent1	.798	3.423	28.527	.816
	ent2	.782			
	ent4	.739			
	ent3	.685			
창업의지	int4	.851	2.371	19.755	.895
	int5	.841			
	int3	.811			
	int2	.760			

4.2.2 확인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이후 측정항목들이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위해 측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지수들이 $\chi^2 = 362.79(N=364)$, p 값=0.002, GFI=0.912, AGFI=0.897, NFI=0.947, TLI=0.982, RMSEA=0.036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기준에 부합되는 측정지수임을 확인하였다.

표 6. 연구단위들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constructs

변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AVE	개념 신뢰도	
창업교육	edu3	.731		.851	.887	
	edu2	.816	.089			11.282
	edu1	.868	.091			12.624
컨설팅	con2	.776		.787	.856	
	con1	.792	.085			11.437
창업자금	fun2	.882		.873	.903	
	fun3	.854	.063			16.752
	fun1	.865	.053			17.192
창업가정신	ent1	.632		.712	.846	
	ent2	.703	.126			9.045
	ent4	.708	.124			9.050
	ent3	.736	.132			9.337
창업의지	int4	.708		.803	.883	
	int5	.802	.103			11.269
	int3	.803	.115			11.281
	int2	.789	.112			11.109

$\chi^2 = 362.79(N=364)$, $df=296$, $p=0.000$, GFI=0.912, AGFI=0.897, NFI=0.947, TLI=0.982, RMSEA=0.036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일치성 정도에 관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집중타당성을 확인하는 각 연구단위의 구성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각각 0.7, 0.5를 상회하는 값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각 연구단위들 간의 상관관계수 값이 모두 연구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AVE의 제곱근 값(\sqrt{AVE})이 다른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각 연구 단위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of constructs

개념	1	2	3	4	5
창업교육	1.000				
컨설팅	.549 (.044)	1.000			
창업자금	.579 (.049)	.508 (.042)	1.000		
창업정신	.504 (.056)	.452 (.054)	.497 (.061)	1.000	
창업의지	.412 (.064)	.323 (.056)	.403 (.060)	.569 (.061)	1.000

*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임, (S.E.)

4.3 가설검증 및 해석

4.3.1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측정모형분석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각 변수를 가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 389.35(N=364)$, 자유도(d.f)=336, $p=0.010$, GFI=0.912, AGFI=0.889, NFI=0.898, CFI=0.923, RMR=0.038, RMSR=0.056 등

으로 대부분의 지수가 권장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변수 간 관계에 관한 가설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가설 검정 결과
Table 8. Results of structure model analysis

가설	경로	경로계수 (S.E.)	C.R.	p	채택 여부
H1.1	창업교육 → 창업의지	.468 (.086)	3.685	.000**	채택
H1.2	창업컨설팅 → 창업의지	.410 (.137)	2.862	.029*	채택
H1.3	창업자금 → 창업의지	-.221 (.087)	-1.238	.268	기각

*p<.05, **p<.01

대학의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검정 결과, 가설H1.1과 H1.2는 채택된 반면, 가설H1.3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기각된 이유는 아직 창업 생태계와 문화가 덜 조성된 상태에서 창업자금의 일환으로 시제품 개발을 위한 보조금, 융자금과 투자금 등을 제공한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업가정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는 Jang & Yang[6]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창업자금이 존재하여도 학생들이 창업동기부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2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분석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시스템 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VIF 값의 경우 1.058-1.381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단계와 3단계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beta=.387$ (Sig=.000)에서 $\beta=.257$ (Sig=.000)로 변화하였고, 창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대하여 $\beta=.435$ (Sig=.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보다 3단계에서 유의성 정도가 줄었으므로 창업가정신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매개효과 크기가 유의미한지는 Sobel test(Z=4.204, p<.001)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창업시스템과 창업의지 간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
Table 9.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between startup support system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P	R ²
1단계	창업교육	창업가정신	.423	4.861	.001	.154
	창업컨설팅		.391	3.383	.001	
	창업자금		.222	1.450	.135	
2단계	창업교육	창업의지	.387	5.240	.000	.274
	창업컨설팅		.355	3.103	.000	
	창업자금		.147	1.890	.062	
3단계 (독립변수)	창업교육	창업의지	.257	3.839	.000	.356
	창업컨설팅		.185	2.865	.000	
	창업자금		.110	1.452	.122	
3단계 (매개변수)	창업가정신		.435	4.868	.000	

*p<.05, **p<.01

다음으로 창업컨설팅과 창업의지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단계와 3단계에서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beta=.292$ (Sig=.000)에서 $\beta=.185$ (Sig=.000)로 변화하였고, 창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대하여 $\beta=.435$ (Sig=.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되었으므로 기업가정신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편, 창업지원시스템의 하위요인인 창업자금은 단계별 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표 10>은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0.257, 0.195)를 나타내었고 간접적인 효과(0.184, 0.170)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가정신이 매개변수로서 간접적인 영향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교육이 창업컨설팅보다는 창업의지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0. 총 효과 분석 결과
Table 10. Results of Total Effect Analysis

독립변수	종속변수	영향력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창업교육	창업의지	0.257	0.184	0.441
창업컨설팅		0.185	0.170	0.355

5. 결 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GEM 모델을 대학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대학의 창업지원 요인을 3가지 요인(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으로 선정된 창업지원시스템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선행변수가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의지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창업지원시스템에서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지원은 학생들에게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ang[8], Lee[20], Kraaijenbrink et al[2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로서 창업교육은 창업자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도전의식이 발생하여 창업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업컨설팅은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방법을 지원하여 창업의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업아이디어를 전문적 조언과 상담을 통해 각종 콘텐츠 지원 및 사업화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창업의지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창업지원시스템의 창업교육과 컨설팅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 & Ha[11], Yoon[18], Turker & Selcuk[22]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대학생들이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창업가정신이 증대 될 때 창업의지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창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창업가정신 증대가 곧 창업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요인과 창업가정신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사점 및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학생창업지원요소가 창업가정신에 따른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인별로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별로 참여 여부에 따른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세 가지 학생창업지원요인 중 응답자가 경험하고 지원받았던 요소를 구분하여 연구를 확대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GEM 모델의 구성요인들 중 일부 요인을 활용했지만,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정제된 창업지원요인이 개발 보완되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J. H. Park, *The \$30,000 era of youth unemployment*, Seoul Korea: Media Channel, <http://www.new1.kr/articles>, Jan. 2018.
- [2] Y. T. Kim,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2 No. 2, pp. 13-20, 2017.
- [3] N. Bosma, S. Wennekers, and J. E. Amoros,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employees across the globe*, London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Vol. 9, No. 2, 2012.
- [4] P. Maria-Jose, and R. Luisa,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t-collectivist culture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evidence fro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7, No. 3, pp. 23-37, 2011.
- [5] H. B. Yang, and J. B.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Young Business Ecosystem*, KIET, 2011-159, 2012.
- [6] S. G. Jang, and S. J. Yang, *A exploratory study on the building business education environment for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pplying GEM model to the university environment*,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 28, No. 1, pp. 1-23, 2014.
- [7] S. S. Bahn, S. P. Seo, K. M. Song, D. H. Cho, J. H. Park, M. S. Cha, and J. B. Park, *Entrepreneurship in Korea: based on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Korea 2012*,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8, No. 3, pp. 309-338, 2013.
- [8] D. J. J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support programs for student business start-u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university*, Master thesis, Chonbuk University, 2015.
- [9] Y. M.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usiness Management Review, Vol. 47, No. 1, pp. 133-149, 2014.
- [10] N. G. Park,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2014.
- [11] J. H. Kang, and K. S. Ha, *A study of effect of self-leadership by college studen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0, No. 4, pp. 1-12, 2015.
- [12] J.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 [13] J. A. Timmons,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Innovation and Change, Vol.

- 6, No. 1, 1994.
- [14] M. H. Morris, and P. S. Lewis,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29, No. 7, pp. 31-48, 1995.
- [15] J. G. Kim, and D. W. Yang,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4, 2016.
- [16] Y. H. Cheong, and K. S. Ha, *A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KOREADIMA, Vol. 15, No. 4, pp. 41-53, 2012.
- [17] S. H. Kim, and J. H. Le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public sec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9, No. 6, pp. 91-99, 2014.
- [18] N. S. Yoon,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 25, No. 2, 2012.
- [19] H. S. Shin, and Y. Y. Ahn, *The influence of food servi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ived by pre-entrepreneur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8, No. 2, pp. 433-452, 2015.
- [20] J. R. Lee,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 and 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 Master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7.
- [21] J. Kraaijenbrink, A. Groen, and G. Bos,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Vol. 9, No. 1, pp. 110-125, 2010.
- [22] D. Turker, and S. S. Selcuk,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 33, No. 2, pp. 142-159, 2009.

대학생의 창업가정신이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정덕화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교수

요 약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활성화를 제고하는데 있어 GEM 모델을 기반으로 창업지원제도의 선행변수와 창업가정신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들이 창업의지와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수립하였고, 4년제 대학생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교육, 창업컨설팅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창업자금지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가정신은 창업교육,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 효과를 분석 결과 창업교육이 창업컨설팅보다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서는 대학의 지원정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과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108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
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uk-Hwa Jung received the M.S. degree an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1988 and 2006, respectively. 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at Paichai University since 2008.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new product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distribution strategy, start-up management etc. He is a member of the KKITS.

E-mail address: jungdh@pcu.ac.kr